



www.koreaero.com



## KAI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KAI가 써 내려온 항공우주산업의 역사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역사입니다.  
이제 KAI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항공우주산업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 KAI magazine

2018 July  
Vol.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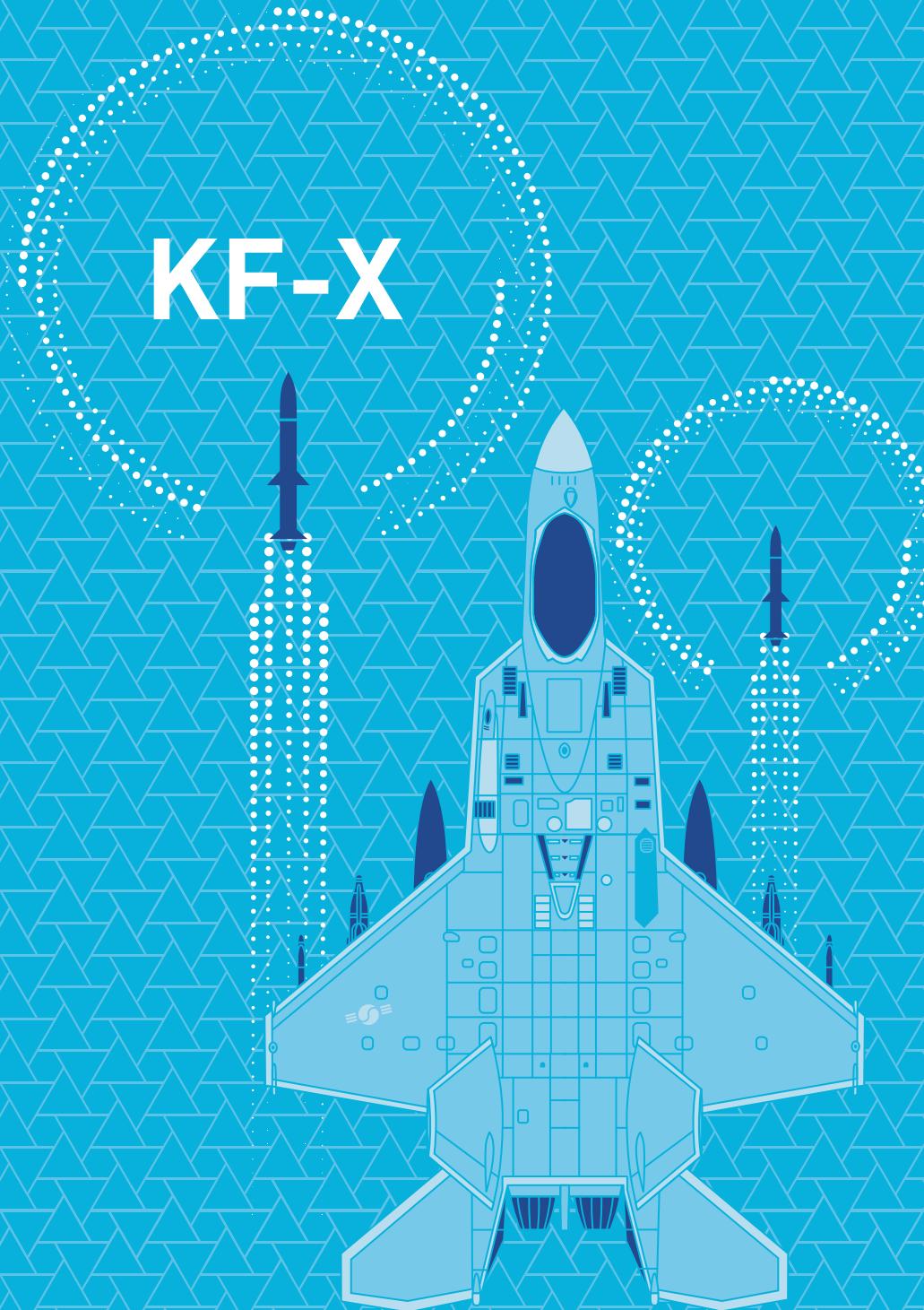
# Fly Together

## KF-X

서프라이즈 이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수면 위로 급부상하다

MAIN THEME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이 있어 도전하라

kaiweazine.com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KAI와 멀티미디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KAI magazin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2018 JULY | Vol. 223

### 스페셜 테마

#### 04 MAIN THEME\_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행동원칙 실천가이드\_도전과 혁신 편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  
하라

#### 08 KAI 챌린지

자주국방의 주춧돌 KAI, 그 사명감 하나로!

#### 10 서프라이즈 이슈

①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수면 위로  
급부상하다

②수리온, 무결점 명품헬기로 비상하다

#### 18 KAI 인문학

영화 <붉은 돼지>와 소설 <야간비행>과의  
만남

#### 20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 서프라이즈 KAI

#### 08 KAI 챌린지

자주국방의 주춧돌 KAI, 그 사명감 하나로!

#### 10 서프라이즈 이슈

①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수면 위로  
급부상하다

②수리온, 무결점 명품헬기로 비상하다

#### 18 KAI 인문학

영화 <붉은 돼지>와 소설 <야간비행>과의  
만남

#### 20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 인사이드 KAI

#### 22 KAI 현장포커스

KUH-1 전문교육기관 지정 후  
최초 민수헬기 조종사 수료

#### 26 KAI People

산정생산팀 한창희 차장  
KFX후방미의팀 이현철 책임연구원  
기체조립품질팀 김건태 과장

#### 28 패밀리가 간다

KFX사업관리팀 송창희 차장 가족의  
서핑 배우기 체험

#### 32 KAI 이심전심

항공기체계품질팀 변아람 과장 &  
김종훈 사원 / 기체생산2팀3직 양기열 &  
조립생산팀6직 최지웅 & 장비개발직  
조보희 기술원의 항초 만들기

#### 36 나의 여행이야기

기체생산2팀2직 이준희 기술원의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

#### 40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잊지 못할 내 인생 최고의 선물

#### 42 KAI toon

슬기로운 직장생활

### 위드 KAI

#### 44 KAI 북클럽

신사업기획팀 이진호 과장이  
소형헬기항전무장팀  
백수현 선임연구원에게

#### 45 뉴스 브리핑

50 독자세상  
51 독자이벤트



발행일 2018년 7월 5일(통권 223호·7월호·비매품)

발행인 김조원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지속경영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담당자 조연진 과장 055)851-6962

제작대행 군디자인연구소 051)796-660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 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  
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  
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16



22



32



26



36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 신기술 개발 향한 불굴의 도전정신이 성공의 해법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비결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나같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선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긴다. 심지어 구글(Google)의 경우 엔 오하려 실패를 권장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수많은 제품을 출시했다가 종단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페이스북(Facebook)이 등장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분야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구글은 2010년 통합형 커뮤니케이션 틀인 '구글 웨이브'를 내놨다. 가 곧바로 문을 닫았으며, 유사 서비스인 '구글 버즈'도 2년도 못돼 쓸쓸히 퇴장했다. 뒤 이어 '구글 카달로그', '구글 비디오', '구글 클래스'도 내놓은 지 얼마 가지 않아 시장에서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구글 웨이브가 처참하게 실패했을 당시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구글은 실패를 칭찬하는 회사"라며 자신만만해 했던 점에서 볼 수 있듯, 구글은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를 기업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축적하며 더 나은 내

우리회사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기술 습득과 발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있어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우리의 실천지침과 다양한 도전스토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을 설계해 왔다. 그들에게 뼈아픈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실패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타 기업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의 구글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실패를 망각하지 않고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성공을 위한 기초체력으로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회사와 같이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굴의 도전정신과 장인정신을 갖추어야만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1960년 대초, 소니(SONY)는 컬러 TV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크로마트론'이라는 신기술을 2년간 실패를 거듭한 뒤에 완성했지만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 1966년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소니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크로마트론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내기로 한 것이다.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엔지니어들은 지난 5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1968년 마침내 그 유명한 '트리니트론(Trinitron)' TV를 신제품으로 내놓았다. 독보적인 성능의 트리니트론TV는 2008년 단종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8천만 대를 판매함으로써 워크맨, VCR과 함께 일본 전자산업의 황금기를 이끈 브랜드가 됐다. 이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소니의 장인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업발전의 큰 자산 축적

기업의 성장에는 반드시 실패와 시련의 역사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실패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 이를 직시하기 보다는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반복적인 실패를 맞게 된다. 반복되는 실패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는 '실패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가 일본에 실패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을 당시 국내에 그의 저술들이 소개되거나 초청강연도 이루어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실패를 두 가지 종류로 보았는데,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실패'와 단순 부주의나 오판 때문에 반복되는 '나쁜 실패'로 나누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쁜 실패는 철저히 막고 좋은 실패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된다고 말했다. 역설적이지만 하타무라 요타로가 창시한 실패학은 결국 성공을 위한 학문인 셈이다.

실패학의 핵심은 깨진 창문으로 들어온 푸른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잉의 경우처럼 한번의 우연을 통한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99번의 실패와 좌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99번의 좌절을 겪는 동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한 번의 행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 사례로부터 얻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나쁜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 GE사는 각 제품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50년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회사의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KAI인의 행동지침



## 개인 실천 지침

01

### 신기술 도전

회사와 자신의 성장/발전을 위해 신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도전한다.

02

###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즉각적으로 모색한다.

03

### 기록관리

신기술 확보의 도전과정에서 발생한 성공 및 시행착오의 내용은 기록·관리한다.

## 리더 실천 지침

01

### 자기 혁신의 솔선수범

자기혁신의 솔선수범을 통해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추진력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리드한다.

02

###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

구성원이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03

###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하며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협의한다.

##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부여, 긍정적인 마인드 유발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지만, 성장과 발전에 대한 열망과 욕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이 창의적 사고와 굳은 도전의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로 보다 큰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회사도 신기술 획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

로 구성원의 도전의식을 독려하고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며, 구성원들은 과거의 기술개발 경험이나 외부의 실패 및 성공사례를 공유해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L'Oréal)의 4대 CEO 린제이 오웬존스(Lindsay Owen Jones)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직원들의 도전을 장려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경영철학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기업 역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동기 부여를 구상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구성원들 개개인이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패를 경험했던 알리바바(Alibaba)의 창립자 마윈 회장은 실패에 익숙해졌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오뚝이처럼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 재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늘 말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의 소유자가 승리하는 법”이라고



# 자주국방의 주춧돌 KAI, 그 사명감 하나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회사는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새겨놓고 있다.



## 우리 방위산업 선진화 실현할 중심 역할

국토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은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주도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기반으로 소위 자주국방 실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초 우리나라에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1970년대 제3공화국에 들어서 비로소 자주국방을 국가경영철학으로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냈다. 1971년 소총 등 기본 병기를 생산하는 1차 번개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율곡사업,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위개선사업을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과제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다.

현대의 방위사업은 첨단기술력을 갖춘 선진 무기체계 도입을 주된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무기수입국으로 그동안 해외 구입에 의존했던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점차적으로 국내의 연구개발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와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사명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방위산업의 선진화는 단시간 내에 달성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 부품의 국산화와 신기술 확보에 전력

국방기술품질원의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2015)'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81점으로 영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지표인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부품의 국산화율이 향상되면 군은 원활한 군수 지원과 적시에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전력 유지가 수월해지며 무기체계 운용 시에도 부품의 가격 변동이나 단종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별 국산화율을 분석했을 때 항공 분야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현재 우리회사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 중인 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사업을 계기로 부품 국산화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각국 간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국내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도 낮은 편이지만 지난 10여 간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보여주고 있어 향후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를 방위산업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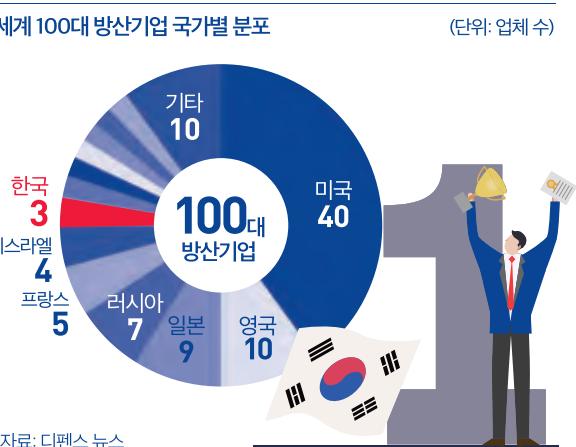
분야 방위산업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무인화, 스텔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회사에서도 관련 첨단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빨 빠른 대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 전 국민적인 자주국방의 염원을 가슴에 새겨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4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7% 증가한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평화무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북태평양 연안의 중국과 러시아, 일본 3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 자리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해 취임 후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국방부를 방문해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공군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회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군력은 미국은 전투기 2,047대, 중국 1,588대, 러시아 1,011대, 북한 810여 대, 일본 348대에 비해 우리나라는 410여 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한국 공군이 2021년까지 차세대 공군 전투기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4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국내 무기체계의 해외의존도를 지금처럼 더 높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우리회사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우리의 기술로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을 염원하는 전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세계 100대 방산기업 국가별 분포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어디까지 왔나

##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수면 위로 급부상하다

KF-X 개발  
사업일정

체계기능검토  
SFR

2017

체계요구조건검토  
SRR

2016

기본설계  
PDR

2018

현제  
체계 개발

2019

상세설계  
CDR

2020

개발 착수

2023

초도비행시험  
초도비행

2022

지상시험  
시제기 출고

2021

2024

후속비행시험  
초도양산 승인

2025

2026

개발 종료  
'26.6

2027~

**10.5**

개발기간

재원분담  
한국정부 60%  
인니국방부 20%  
업체 투자 20%

개발대상  
항공기체계  
훈련체계  
군수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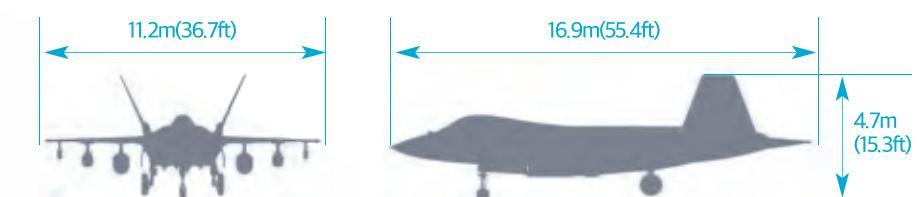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개발 사업이 2022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장기간의 개발일정과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되는 KF-X는 우리회사의 미래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막중한 사업으로 전 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최근, 핵심 시설인 항공기 구조시험동 완공과 KF-X에 탑재될 AESA 레이다 국내 개발 가능성 점검(AESA 레이다 PDR 완료)을 통해 KF-X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F-X 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 6개월간의 대장정

우리의 독창적인 기술역량으로 개발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F-4, F-5, KF-16, F-15K 등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이 중 F-15K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년 이상 운용된 노후기종이다. 현재 스텔스 전투기인 F-35 도입이 결정됐으나 2019년 이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후 전투기 대체전력으로서 KF-X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KF-X 사업은 지난 2011년 우리회사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간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5년 3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우리회사가 선정되고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기술/가격/조건 협상을 통해 동년 12월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다. KF-X 개발의 여정은 2016년 1월 KF-X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F-X는 201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0년 6개월의 기간 동안 AESA 레이다 등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한 F-16+α급의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항공기체계, 훈련체계, 군수지원체계를 대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체계는 KF-X 비행시험 시제기와 구조시험 시제기, 훈련체계는 비행·정비훈련 장비를, 군수지원체계는 지상지원 및 점검장비, 기술교류 등의 11대 요소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은 우리정부 60%, 인도네시아 20%, 업체 20%(KAI 15%) 투자로 구성된다.



## 올 6월 PDR 완료 후 2021년 시제기 롤아웃

2016년 6월 22일 우리회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체 형상설계를 위한 KF-X 저속풍동시험에 착수한 이후 2단계 풍동시험을 완료하고 2018년 6월 항공기체계 PDR를 통해 외형(OML; Out Mold Line)을 확정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확정된 형상에 대한 상세 공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3단계 과정으로 총 1만3,000시간 동안 저·고속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로터리밸런스, 스피드 등의 각종 풍동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KF-X 체계개발 사업은 2016년 3월 체계요구조건 검토회의(SRR, System Requirement Review)와 동년 12월 체계기능 검토회의(SFR, System Functional Review)를 통해 충분한 설계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후 올 6월 기본설계 검토회의(PDR, Preliminary Design Review)까지 마무리해 정상적인 계획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9월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Critical Design Review)를 완료하고 2021년 시제기 롤아웃, 2022년 최초비행을 거쳐 2024년부터 초도기 양산착수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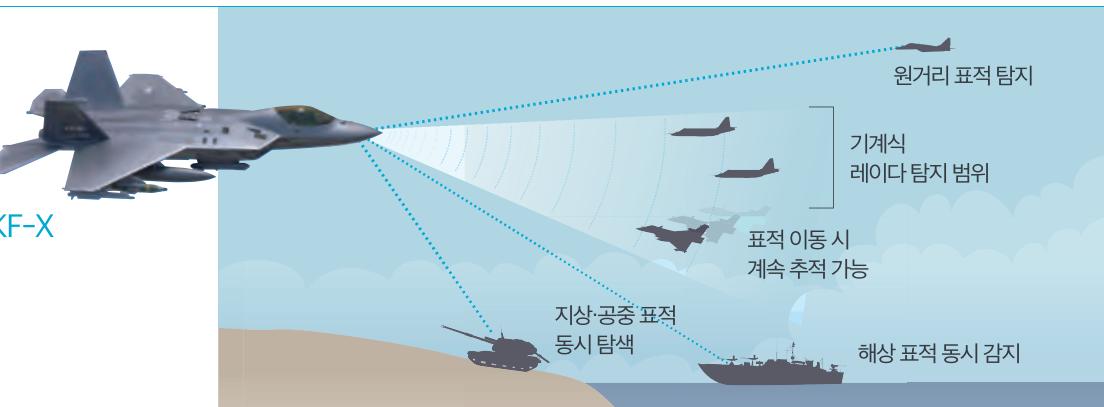
풍동실험

## KF-X 핵심기술인 AESA 레이다, 국내기술로 개발

KF-X 사업은 독자적인 성능개량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4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자립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대 핵심기술은 AESA(Active Electrically Scanned Array) 레이다를 비롯해 적외선 탐지추적장치(IRST, Infra-Red Search & Track), 전자광학표적 추적 장치(EO-TGP, Electro-Optical Targeting Pod), 전자파 재밍장비인 RF(Radio Frequency) Jammer 등이다. 모두 고도의 기술력이 담보되는 장비들이며 기술개발에만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中最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 바로 AESA 레이다이다.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AESA 레이다의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검토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는 실 장비와 연동한 모의시험 수행과 각종 기술 자료 검토를 통해 KF-X 체계 및 체계기능 요구조건이 AESA 레이다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세설계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AESA 레이다는 지난 2015년 록히드 마틴 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던 KF-X 핵심기술 중 하나로,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전투기 체계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장비인 AESA 레이다는 안테나를 구성하는 단면 위에 배열된 각각의 방사소자 송·수신 기능을 갖는 모듈로서 레이다 기능에 필요한 고주파를 생성,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공대지·공대해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AESA 레이다와 KF-X 간 체계통합을 위해 우리회사와 긴밀히 협업해 2019년 5월까지 상세설계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2020년에는 최초 레이다를 출고하고 2022년부터는 KF-X 시제기에 이를 탑재해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AESA 레이다가 국내 기술로 완성되면 일본이나 러시아, 유럽의 4.5세대 전투기와 견줄 정도로 고도의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ESA 레이다 성능



## 핵심개발시설인 항공기 구조시험동 준공 등 인프라 확보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적인 개발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성능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회사는 개발설비 구축 로드맵을 설정, 각 분야별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설계·해석을 위한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가상현실(VR) 및 가상풍동(전산유체시뮬) 시설을 완비했고 항공기용 재료 물성치 확인을 위한 소재·공정 개발실도 확보했으며 저피탐 성능측정 및 해석SW와 모의전투 실험설비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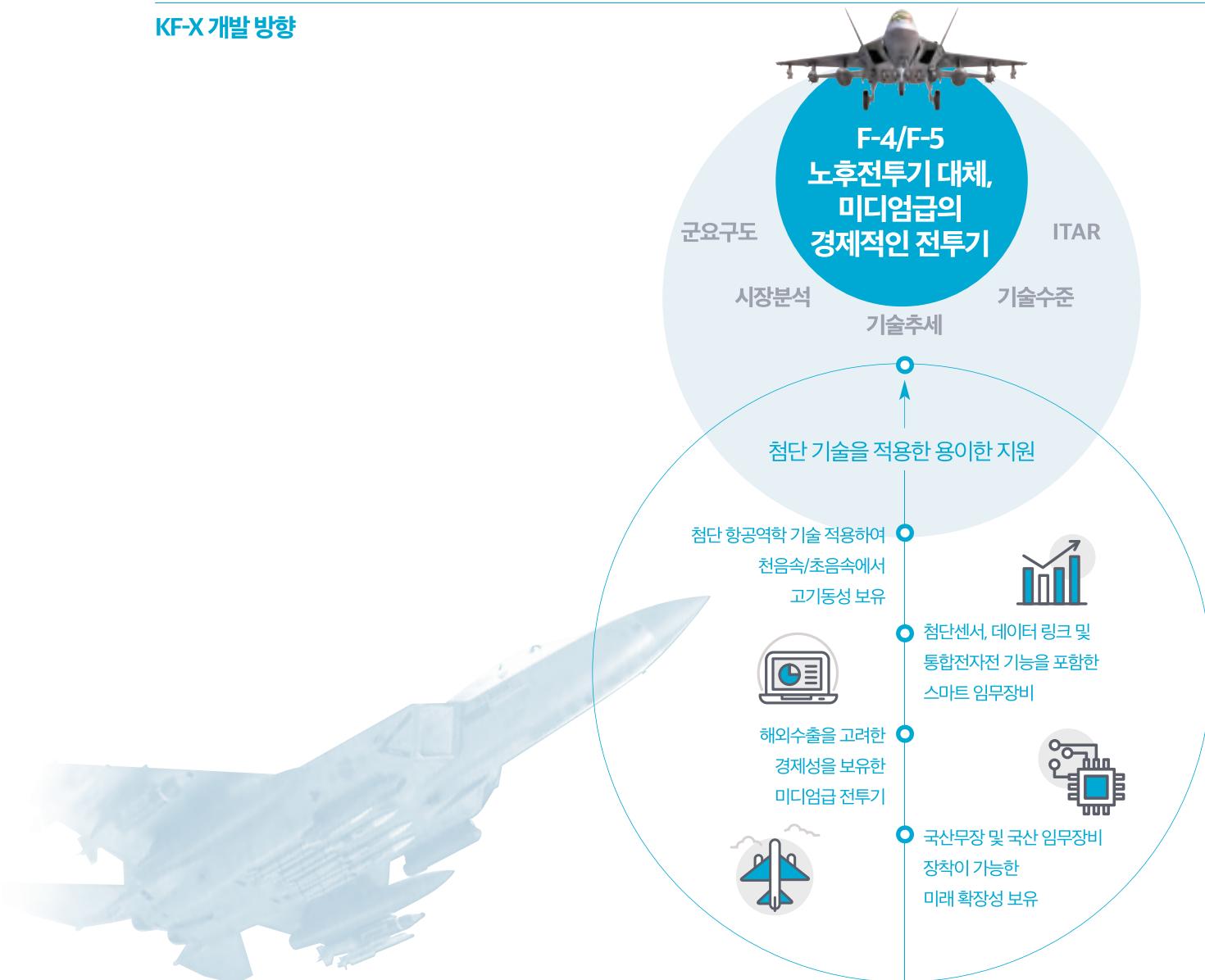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기 구조시험동을 준공해 KF-X 개발시험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항공기 구조시험은 비행 환경에서 받는 양력, 항력, 진동 등 외부 하중에 대한 기체, 구성품 등 항공기 구조물들의 강도 및 내구성 측정 평가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을 수행하게 될 우리회사의 항공기 구조시험동은 연면적 6,965m<sup>2</sup>, 건축면적 5,382m<sup>2</sup>으로 KF-X 기체 구조시험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시간 시험제어 및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시험통제실과 양력, 항력, 진동 등 외부 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유압장치, 시험하중 지지를 위한 강화바닥 등 최첨단 설비들을 갖추어 구조시험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험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의 KF-X 개발설비로는 비행제어 통합시험 설비(아이언버드, HQS), 항전통합시험실(SIL, STE), 비행시험 임무통제실(MCR)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각 계통 리그시험장과 각종 개발 인프라 등을 갖추어 나갈 전망이다.

### 항공기 구조시험동 개요

<b>규모</b>	연면적  6,965m <sup>2</sup>	건축면적  5,382m <sup>2</sup>
<b>주요 설비</b>		
운영실	강화바닥	시험통제실
유·공압설비	장비보관대	천장크레인
<b>활용 계획</b>	<input checked="" type="checkbox"/> KF-X 전기체/구성품 구조시험 수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후 신규 개발 구조시험 활용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KF-X 사업수행에 최적화된 구조시험동 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기체 구조시험 능력 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첨단 통제 시스템으로 시험품질 제고
<b>기대 역량</b>		

### KF-X 개발 방향



### 첨단 기술 적용해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위상 확립

KF-X 사업은 우리 국방력 상승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군요구도에 부합하는 형상설계를 완료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제어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항전 OFP 및 주요 LRU(Line-Replaceable Unit) 개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우리회사 구성원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도양산 1호기 기준으로 국산화율 65% 수준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회사만의 축적된 기술과 국내 협력업체의 역량을 집약해 국산화 대상품목도 총 85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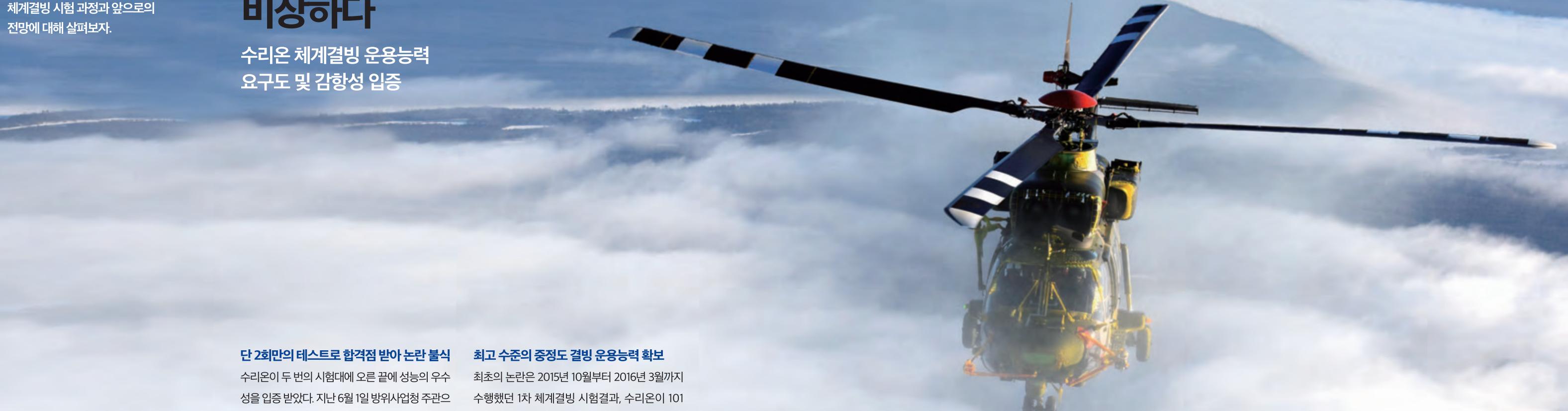
또한 첨단센서, 데이터 링크 및 통합전자전 기능을 포함, 스마트 임무장비와 첨단 항공역학 기술 적용을 통한 천음속·초음속에서의 높은 기동성을 보유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항후 KF-X는 항공기체계와 훈련 및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수출을 고려한 중급의 전투기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요구도는 물론 철저한 시장분석과 기술발전 추이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미래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할 계획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KOREAN FIGHTER EXPERIMENTAL

최근 수리온은 항공기 체계결빙 테스트에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그동안의  
성능 논란을 불식시키고 최고 수준의  
한국형 기동헬기로 거듭났다.  
이번에 수리온이 입증 받은  
체계결빙 시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수리온, 무결점 명품헬기로 비상하다

## 수리온 체계결빙 운용능력 요구도 및 감항성 입증



### 단 2회만의 테스트로 합격점 받아 논란 불식

수리온이 두 번의 시험대에 오른 끝에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지난 6월 1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41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회사 KUH-1(이하 수리온)이 마침내 체계결빙 운용 능력에 대한 감항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제 수리온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체계결빙 성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군의 전천후 작전수

① 수리온 체계결빙 시험을 위한 CEO 현지 방문

② 물입자를 분사할 수 있는 헬기(HISS)가 만든

인공구름 속을 비행하는 수리온



### 최고 수준의 중정도 결빙 운용능력 확보

최초의 논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했던 1차 체계결빙 시험결과, 수리온이 101개 항목의 인증 기준에서 29개 항목의 감항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시작됐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수리온을 무결점 헬기로 만드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 시험 만에 모든 항목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체계결빙 비행시험에는 물입자를 분사할 수 있는 헬기(HISS, Helicopter Icing Spray System)가 만든 인공구름 속에서 비행 테스트를 하는 인공결빙시험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결빙 구름 속에서 테스트하는 자연결빙시험으로 구분된다. 수리온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미국 미시건주 마켓(Marquette)에서 방위사업청, 육군·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체계결빙 비행시험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 군용헬기 중 최고 수준인 중정도 (Moderate) 체계결빙 운용능력을 확보해 결빙조건에서도 작전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중정도 결빙 조건이란 대기 중 수증기량이  $0.5\sim1.0\text{g}/\text{m}^3$ 인 환

경 조건인데, 이는 수리온이 영하  $30^\circ\text{C}$ 까지의 극저온 및 높은 수증기를 포함한 결빙지역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헬기 중 결빙 운용능력이 가장 우수한 UH-60과 동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었을 때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한 착빙탐지기로 변경했다. 또한 엔진공기 흡입구의 히터매트를 연장하고 KAI 고유의 형상을 추가하여 결빙문제를 해소했다.

전선절단기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히터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전력량을 증가시켰으며 지지대 브리켓의 변경도 적용했다.

수리온이 체계결빙 요구도에 만족하는 성적을 내어 겨울철 안전성을 입증한 가운데 이제 우리 군은 수리온을 통한 전력화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기관에서 수리온 민수헬기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회사는 수리온 파생형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군 전력화 강화와

#### 민수헬기사업 확대에 힘 실어

수리온은 이번 체계결빙 시험을 위해 1차 비행시험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먼저 주꼬리 로터 표면 눈과 얼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제빙 제어기 히팅(heating) 로직을 변경했으며, 영하  $30^\circ\text{C}$ 의 결빙조건에서도 얼음이 기체에 달라붙

# 낭만 비행과 목숨을 건 비행 사이에서

영화 <붉은 돼지>와  
소설 <야간비행>과의 만남



일본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소문난 '비행기 마니아'이며,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1900~1944)는 공군장교 출신이다.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의 작품에는 '비행'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그 속에 투영된 비행 스토리를 살펴보자.

## 날지 않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

1992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 <붉은 돼지>는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공군기 조종사 '포르코 롯소(Porco Rosso)'라는 주인공이 파시즘의 실체를 목격한 후 자신에게 마법을 걸어 돼지로 변해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는 돼지의 모습이지만, 이탈리아 공군의 에이스 비행사답게 자신의 붉은 비행정을 조종하며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와 그림처럼 펼쳐진 구름을 배경으로 멋지게 날아오른다. 주인공 포르코의 말처럼 '날지 않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인 삶을 보란 듯이 비껴가며, 유람선을 습격해 돈과 귀금속을 강탈하는 하늘의 악당 '공적(空賊)'을 잡는 현상금 사냥꾼이 되었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는 명예와 소신을 지키는 파일럿이었다.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붉은 돼지>는 빛나는 전공을 세운 이탈리아 공군 비행사가 은신처에 숨어 살면서 경쟁자와의 비행 대결을 통해 사랑을 얻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영화 속에는 뚜렷한 악인 하나 없이 보는 내내 유쾌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이 가득하다. 오로지 영화의 저변에는 '비행'이라는 주인공 자신의 숙명을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 특유의 낭만과 반전의식이 깔려 있다. 전투에서 동료와 친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파시즘에 빠진 국가를 미워하며 홀로 떠난 포르코는 국가와 군으로 돌아오라는 옛 친구의 권유에 '파시스트보다 돼지가 나이'라며 냉정히 거절하는 장면에서 <붉은 돼지>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비행기 마니아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明)과 암(暗)

비행기 마니아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는 우리에게 친근한 <미래소년 코난>에서부터 은퇴작인 <바람이 분다>에 이르기까지 주옥과 같은 작품들 속에 다양한 형태의 비행체를 구현해 등장시켰다. 비행기가 이처럼 자주 등장하는 것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릴 적 로망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평생에 걸친 마니아적 취향은 어린 시절 살았던 도시 주변의 비행기 부품 제조 공장에 대한 기억과 전쟁과 아동 잡지 기사들에서 영향을 받았다.

<붉은 돼지>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그는 반전·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으나, 마지막 작품 <바람이 분다>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카미카제 공격에 쓰인 '제로센' 전투기를 설계한 호리코시 지로의 이야기를 다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비록 <바람이 분다>가 전쟁을 친양하는 장면 없이 그저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던 한 남자의 꿈과 사랑을 담았다고는 하나, 전쟁에 대한 반성과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배제한 채 상영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원

성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팬들은 적어도 <붉은 돼지>에서 보였던 비행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비행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고뇌한 생텍쥐베리

미야자키 하야오와 달리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프랑스 공군 출신 비행사였다. 입대 후 2년 만에 비행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의가사 제대를 했음에도 그는 비행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 1926년 에어프랑스사의 전신인 라테코에르에 기술자로 입사한 그는 우편 비행사로 비행기를 다시 몰았다. 이후 비행기 고장 등 갖가지 추락사고와 조난으로 아찔한 경험을 한 생텍쥐베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행을 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재입대하여 정찰 임무를 맡았다. 1944년 쌍발기인 P-38기를 몰고 마지막 정찰비행을 떠난 그는 결국 실종됐으나, 지난 2000년 P-38 잔해가 발견되고 그를 격추시킨 당시 독일군의 고백으로 인해 독일 전투기 ME-109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됐다.

1931년 출간된 생텍쥐베리의 두 번째 소설 <야간비행>은 그의 경험이 한껏 배어있는 '비행문학'이다. 출간과 동시에 평단과 독자의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2년 뒤 영화로도 제작되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야간비행>은 폭풍우를 뚫고 비행해야 하는 야간 우편기 조종사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야간비행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불굴의 의지를 그려나가고 있으며, 희생된 비행사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가 깔려 있는 작품이다. 마치 다리를 건설하다 죽은 인부와 그 다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편리함과 행복함 사이에서의 갈등을 담아냄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과 같다.

우리회사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라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시의 야간비행 개척자들이 펼친 노력과 닮아 있다. <붉은 돼지>가 파시즘과 같은 비인간화를 경고한 작품이라면, <야간비행>은 '행동과 실천'만이 다수의 행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족. 미야자키 하야오는 20살 때부터 생텍쥐베리의 작품을 읽고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98년 실제로 생텍쥐베리가 공군 복무를 했던 남프랑스 툴루즈에서 비행 중 불시착한 사하라 사막까지, 그의 흔적을 따라 여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팬이었다.

##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세계의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었다. 각국은 여객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장의 요구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무인기와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생존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세계 항공우주업계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 IKHANA

### 세계 최초로 추적 비행기 없이 단독 비행 성공

미 항공우주국(NASA)의 대형 무인항공기 '이크하나(Ikhana)'가 세계 최초로 공공 영공에서 추적 비행기 없이 단독 비행을 마쳤다고 미국 IT매체 <씨넷(CNET)>이 지난 6월 13일 전했다. 이크하나는 미 캘리포니아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상업용 비행기들이 운행하는 영공을 6,100m 고도 순항에 성공했다. 2014년 세계 최대의 해상 군사훈련인 '림팩'에서 첫 선을 보인 이크하나는 항공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가까이 운행하는 것을 회피하는 첨단 기술 시스템이 탑재돼 있으며 현재 위치를 다른 비행기에 전송하는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이 내장돼 있다.

한편, NASA측은 이번 비행을 '역사적인 비행'이라고 논평하고 "상업적 혹은 개인 조종사들이 영공에서 무인 항공기를 운행하고자 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 Ryugu

### 하야부사 2호,

#### 4년 날아 태양계 소행성 궤도 진입

지난 2014년 12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발사한 우주선 하야부사(Hayabusa) 2호가 4년 가까이 목표지까지 날아 소행성 류구(Ryugu)에 접근했으며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궤도를 도는 소행성 류구는 최장 지름 약 900m, 공전 주기 475일의 소행성으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생성 당시의 원시물질과 유기물질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풀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하야부사 2호는 이 소행성에 착륙선을 보내 시료를 채취하고 2020년 왕복 총 52억km에 걸리는 대장정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 봄바디어, 2대의 최신 비즈니스 항공기 개발 발표

캐나다의 세계적 항공기 생산기업 봄바디어(Bombardier)는 지난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비즈니스 항공 컨벤션 및 전시회에서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형 비즈니스 제트 기인 Global 5500과 Global 6500을 선보였다. 봄바디어측은 최적화된 날개와 더욱 편안한 객실, 새로운 롤스로이스 엔진을 두 기종에 장착하였으며 최대 13%의 연료 연소 효율성까지 더해 합리적인 운영비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Global 5500은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파리, 모스크바와 LA까지 논스톱 비행이 가능하며 Global 6500은 런던에서 홍콩 또는 싱가포르까지 비행할 수 있어 장거리 노선에 적합하며, 두 기종의 취항은 2019년 말로 예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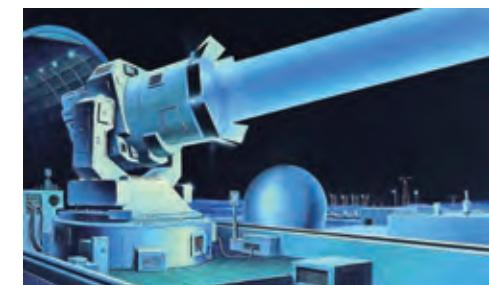


# CR-929

### 중국·러시아 합작 대형여객기 개발 나서다

전 세계 장거리 대형여객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 개발기업들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지난 6월 21일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국영 통합항공 기체작사(OAK)와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광폭 동체형 장거리 여객기 'CR-929'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항속거리 1만2천km, 좌석 280개의 대형 여객기를 제시했으며 최신 공기역학 디자인과 첨단 복합소재, 차세대 터보팬 제트엔진 등을 CR-929에 채택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공기역학, 구조소재, 핵심 시스템 및 설비에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 상업 노하우, 아이디어를 담을 계획이며 오는 2023년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에 정식 인도할 예정이다. 한편 CR-929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문 이니셜을 합친 것이며, 프로젝트 명명식이 치러진 지난 해 9월 29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 LASER CANNON

### 광학망원경 기반 강력한 레이저 발사해

#### 우주쓰레기 제거

국제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왕복선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우주쓰레기를 한 방에 녹여버릴 '레이저 캐논(laser cannon)'을 러시아 연방우주국(Roscosmos)이 개발하고 있다고 러시아 TV매체 <RT>가 최근 보도했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레이저 캐논은 우주공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3m 크기의 광학망원경을 기반으로 지구 저궤도에 있는 우주쓰레기를 타깃으로 정하고 지상에서 레이저를 발사, 열 에너지로 물체를 제거한다. 그러나 만약 레이저가 정확하게 발사되지 않거나 타깃을 완전하게 없애지 못하고 방향만 바꾸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체계적 교육으로 수리온 조종사의 요람으로 탄생

KUH-1 전문교육기관 지정 후 최초 민수헬기 조종사 수료



우리회사가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로 개발한  
KUH 수리온이 파생형 사업을 통해  
민수헬기로 재탄생되어  
산림청, 소방본부 등 각 국가기관으로  
납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종사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항공조종사 교육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첫 수리온 민수헬기 조종사가  
탄생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 체계적인 전문교육기관의 역량을 인정받아

군 병력수송 등 한국형 기동헬기(KUH-1)로 개발된 수리온이 점차 민수용 파생형 개발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 8대가 계약되어 이중 4대가 납품되고 지난 5월 16일과 19일에는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산림청에 수리온 파생형 헬기를 각각 인도하면서 우리회사의 민수헬기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관으로 납품되는 민수헬기는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으므로 KUH-1 민수헬기에 대한 한정자격 획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이 요구되어 우리회사는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게 됐다. 이번 인가는 수리온 민수헬기 조종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방위산업체가 운영하는 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는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국내에는 9개 기관 10개소에서 항공기 조종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수리온 조종교육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항공학교 수리온훈련센터에서 군 전력화의 일환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우리회사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게 됨으로써 민수헬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기관의 역량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우리회사는 그동안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수리온 조종사 양성을 위해 완성도 높은 첨단 훈련시뮬레이터를 독자 개발, 현실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악천후나 비상상황, 제한지역 등의 각종 환경에서 조종사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훈련시뮬레이터는 조종사 교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수리온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문교육기관 인가로 인해 더욱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KUH-1 조종사 형식한정 과정

### 1. 교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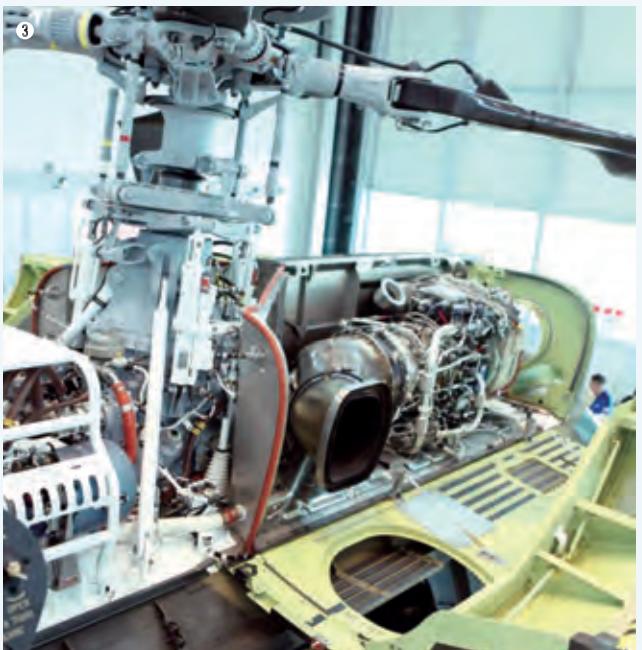
총 162 시간

학과교육  
140 시간  
실기(비행)  
22 시간 \*평가 2시간 포함

2. 입교자격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보유 조종사

### 3. 연간 정원

50 명





비행 전 브리핑 중인 교육생들



비행 전 점검



KUH-1 CBT

## 최초로 수료한 산림청 헬기 조종사 2명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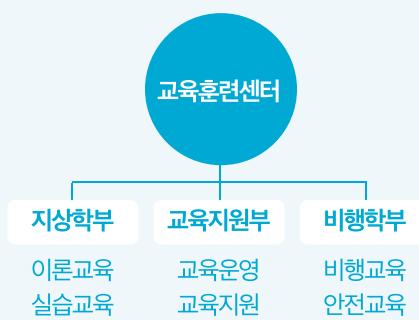
우리회사의 교육훈련센터가 KUH-1 헬리콥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이후 지난 5월 10일 첫 수리온 민수헬기 조종사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주소방본부 소속 6명의 헬기 조종사가 학과교육을 이수했으며, 올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들 중 황호정 기장이 실기교육을 마쳤다. 또한 9월 25일부터 10월 29일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4명이 학과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중 올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권혁진·현영부 기장이 실기교육을 마치고 '항공종사자 헬리콥터 조종사 과정(KUH-1 형식한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처럼 우리회사가 수리온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고 최초의 조종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곳곳을 누빌 수리온의 밝은 미래 가능성과 더불어 최고의 수리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 KUH-1 형식한정 과정 비행교육시간



### KAI 교육훈련센터 조직도



### KUH-1 형식한정 자격 취득 위한 교육 실시

수리온 조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은 우리회사의 조종사 교육전문부서로서 '교육훈련센터'라고 명명했으며, 수리온 민수헬기 구매기관 및 단체 조종사를 대상으로 기종한정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에게는 KUH-1 헬리콥터에 대한 형식한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조종사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KUH-1 헬리콥터 형식한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훈련센터는 우리회사 운영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지상학부, 교육지원부, 비행학부를 두어 운영되는데, 지상학부에는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지원부에서는 교육운영 및 지원, 비행학부에서는 비행 및 안전교육을 관장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센터의 비행교육에 필요한 공역은 사천공항을 주 훈련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관할 비행장 및 사용 협정이 체결된 군용 비행장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 통일되고 표준화된 절차로 교과과정 운영

수리온 형식한정 교육은 총 10주 과정으로 다양한 학과교육(140시간)과 비행교육(22시간)으로 진행된다. 지상학교육인 학과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수리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서부터 각 계통별 작동원리 및 운용절차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실기과정인 비행교육은 기본(임무)비행 8시간, 계기비행 6시간, 야간비행 4시간, 비상절차 4시간 등 총 2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2시간의 평가시간이 주어진다. 비행교육 시간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다.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는 회전익 사업용자격증명 소지자 이상 및 비행경력을 고려하여 수리온 운용에 필요한 모든 항공지식 및 비행장비 숙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완료 전에는 다음 단계 훈련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수리온 형식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기에 합격하면 소정의 이수증명서를 수여하며, 그 결과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kaa.atims.kr)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다.

한편 수리온 형식한정 교육훈련에 대한 품질에 대한 보증은 교관 및 훈련운영 전반에 대하여 훈련의 계획, 실시, 분석에 있어 통일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사용해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신뢰 있는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상학 교재



① 비행 전 항공기 점검  
② 항공기 시동  
③ 민수헬기 초도운용요원 교육 수료식

**고객과 공감하며 믿음 주는  
현장 해결사**

기체조립품질팀  
김건태 과장

산청사업장은 에어버스사의 A320, A321 날개 하부 구조물을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으로 영국, 중국 등 해외 납품처가 많아 품질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기체조립품질팀 김건태 과장은 바로 이곳에서 사소한 고객의 문제점 하나라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자료 제공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에 납품된 제품에서 실런트(Sealant)가 굳지 않아 고객 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지만 김 과장은 제품의 납품 전후로 제작된 3개월 물량을 전수 조사해 제작당시의 온도와 습도, 작업환경 등의 데이터와 자료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우리회사의 우수한 품질관리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김건태 과장은 5월 KAI People 선정에 대해 “그동안 고객 만족을 위해 저에게 보여주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카르페디엠(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이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회사 구성원 모두가 내·외부 고객과 자신의 업무 만족을 위해 현재를 즐기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 나보다 동료와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 5월의 'KAI People' 3인

**지식을 공유하는  
빛나는 조력자**

산청생산팀  
한창희 차장

축구경기에서 메시나 호날두 같은 스트라이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에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어시스턴트 하는 선수도 빼칠 수 없는 공로자다. 산청생산팀에서 근무하는 한창희 차장은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협력사와 함께 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생산현장 곳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숨은 조력자로 칭찬이 자자하다.

특히 근무자가 본사와 떨어진 산청임에도 사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솔선해 도와주고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KAI의 인재이다. 그는 품질불안문제 해소와 40여 건의 혁신과제로 물류흐름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자재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등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R50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한창희 차장은 평소에도 동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웃음과 여유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주고 있다.

한 차장은 처음 산청공장을 셋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 왔고 현장에서의 즐거움도 배가된다고 밝혔다.

“손 안에 지식을 쥐고만 있으면 그 지식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선배님의 조언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베풀 때 저 스스로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회사는 매월 KAI인의 핵심가치 실천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KAI 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면밀한 심사 후 선정된 3인을 만나보자.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감성 리더**

KFX후방미의팀  
이현철 책임연구원

자신마저 돌아보기에도 빼듯한 업무에 쫓기다 보면 동료까지 배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 '감성 리더'로 불리는 KFX후방미의팀 이현철 책임은 선배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조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는 팀원들이 일정에 쫓겨 평일·주말 구분 없이 늦게까지 임무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생활도 있어야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며 후배사원들을 위해 팀 동료들과 야유회나 영화 관람, 맛집 기행을 추진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동고동락하는 이현철 책임은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선배이자 팀원이 되고 있다. 그는 에어버스 A350XWB-1000 Wing Rib 개발 당시 해석 일정과 해석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이현철 책임은 "저를 추천해준 국제공동개발팀 이흔주 책임을 비롯해 당시 팀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워라밸을 실천하는 KAI인이 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서핑에 도전한  
KFX사업관리팀  
송창희 차장 가족

## 청량한 여름 바다에서 즐긴 짜릿한 파도와의 썸!



도심의 짜는 듯한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서핑'은 새로운 스포츠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서핑보드에 올라파도 위를 시원하게 가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더위를 날려버린다.

속이 뻥 뚫린 만큼의 쾌감과 짜릿함을 주는 서핑! KFX사업관리팀 송창희 차장 역시 그런 '휴식'을 원했다. 그동안 숨 가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그가 과감히 가족과 함께 '서핑'에 도전했다.



### 일과 여가, 균형 있는 삶을 위한

#### 노력의 첫 걸음

서핑을 하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는 송창희 차장. KF-X 사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최근 KF-X 사업의 PDR(기본설계검토회의)를 앞두고 있어 더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 잘못되면 한 달 뒤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일이기에 신중하고 완벽히 준비해야하는 일이다. 이는 송창희 차장뿐만 아니라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가 퇴근시간, 주말 할 것 없이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이 좋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잠시 한 템포 쉬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내년이면 고3, 둘째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여유를 갖고 가족과 대화하고 즐길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니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 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다고. 이리저리 고민하던 중

눈에 들어온 직원가족 참여코너인 '패밀리가 간다' 신청공고. 이제껏 사내응모도 처음이지만, 한번도 당첨된 적이 없었던 송창희 차장이었기에 '설마 될까'하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그래도 혹시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막상 체험 가족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고 한다. "다같이 바쁜데, 저만 시간을 내어 쉬려니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줘야 제가 더 발전하고, 일에서도 한 단계 높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 기회를 즐겨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여름의 열기만큼 뜨거운 서핑에 대한 열기

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3시, 서핑에 도전할 송창희 차장과 그의 아내 임은숙씨 둘째 딸 송희 양이 서핑의 대표 스팟(Spot)인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을 찾았다. 원래 송창희 차장의 가

족은 첫째 송영웅 군을 포함해 네 명. 하지만 이날 아들은 학업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쉬웠던 감정도 잠시,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강사와 마주한 세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역력하다.

오늘 송창희 차장 가족의 서핑교육을 맡은 강사는 3년차 서퍼 김재희 코치. 그는 우선 실내에서 약 15분간의 이론교육을 통해 보드의 구조와 명칭, 안전 수칙과 서핑 규칙을 가족에게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 중에서 코치가 가장 강조한 것은 '보드는 항상

내 옆에, 한 파도에는 한 서퍼만' 타야한다는 사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사전 교육 후 키와 체형에 맞춰 서핑 웨트슈트(Wet suit)로 갈아입고, 타게 될 서핑보드와 발목을 연결해주는 '리쉬코드(Leash cord)'를 받아 송정 해변으로 나간다. 리쉬코드는 발목과 서핑보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보드를 손으로 짚고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다.

장비를 챙겨 나간 해변에는 송창희 차장 가족 외에도 이미 서핑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과 더워진 날씨에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바다로 나가기 전, 모래 위에 각자의 보드를 놓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다음, 사전강습이 시작된다. 가족들은 각자 보드에 엎드려 양팔을 바다 속에 넣어 노를 젓는 동작인 '패들링'부터 요ガ의 코브라 자세처럼 상체를 밀어 올리는 '푸시'동작, 양손으로 몸을 밀며 일어서는 '테이크오프'까지 코치의 꿈꿀한 지도 속에 서핑의 기본자세를 습득해 나간다. 특히 송창희 차장의 넘치는 의욕과 습득력에 김재희 코치는 "오늘의 에이스"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 서핑의 메카 송정에서 만난 첫 파도

오늘은 수온 20°C, 파도 0.3m 정도로 송창희 차장 가족 같은 서핑 입문자나 초보들이 파도를 타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의 바다다.



3시간의 서핑 교육동안 세 식구는 서핑과 바다의 매력에 끌려버렸다. 자신도 몰랐던 서핑에 재능을 발견한 아내, 몇 번이고 물에 빠지며 몸 개그의 향연을 펼친 송창희 차장, 아빠 엄마에게 연신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딸!

서핑을 통해 가족은 친근함에 활력과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었다.



### Feel the Waves 송정서핑학교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우리나라 대표 서핑 포인트로 손꼽힌다.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도 부드러워서 서퍼들에게 인기가 많고, 겨울에도 바다 수온이 11°C로 따뜻한 편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서핑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송정해수욕장에는 많은 국내 서퍼들이 찾기 시작했고, 서핑술, 서핑학교 등이 다양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송정서핑학교는 우리나라에 서핑이 정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인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한다. 송정을 서핑의 메카로 만든 중심에 송정서핑학교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정서핑학교의 원장인 서미희 씨는 대한민국 1세대 여자 서퍼이자 베테랑 강사로 정평이 있다. 그 외 강사진들 역시 '국제서핑협회 ISA Coaching Lv. 1', '수상인증구조 자격증' 등을 취득한 전문코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믿고 서핑을 배울 수 있다. 훌륭한 국내 서핑의 지도자와 선수들, 유소년들이 이곳 송정서핑학교를 거쳐 갔고, 지금도 선수나 동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서핑 강습은 보통 1:5 소수로 이론과 지상연습, 입수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2시간 교육과 1시간 자유서핑으로 진행된다. 어른뿐만 아니라 초등부 이상 어린이 서핑 강습반이 있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서핑을 배울 수 있다.

전화문의 051)704-0664  
홈페이지 [www.surfschool.co.kr](http://www.surfschool.co.kr)

주소 1호점\_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54  
2호점\_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28, 2층  
연중무휴 AM 7:00 OPEN / 실내 무료주차 가능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 오후 3시 40분경 세 사람 모두 드디어 입수! 바닷물이 기슴팍에 닿는 정도의 깊이에서 보드 위에 올라탄다. 첫 타자는 아빠 송창희 차장. 코치가 파도를 보고 보드를 밀면, 패들링 후 코치의 '푸시' 구령에 맞춰 일어나 파도를 타면 된다. 김재희 코치가 "푸시!"를 외치자 송창희 차장은 보드 위로 몸을 세워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금세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고 만다. 아내와 딸 역시 마찬가지. 아직은 익숙치 않은 첫 파도에 어김없이 바다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파도를 탄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두 번 만에 아내 임은숙 씨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파도 위를 미끄러져 나간다. 이후로 감을 잡았는지 10번이면 10번, 모두 서핑에 성공하며 '서핑 신동'이 아니냐며 코치도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다. 송창희 차장은 사실 처음에는 우연이

겠거니 생각했다고 한다. "진짜 놀랐어요. 아내가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워낙 여리여리하고 체구도 작아서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하하하." 엄마, 그리고 아내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송창희 차장과 딸 송희 역시 넘어지길 반복하며 자세를 잡아갔다. 30~40분 정도 코치와 함께 파도 타는 법을 배운 후, 30분가량은 코치 없이 혼자 파도를 느끼고 서핑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직은 혼자 파도를 보고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만은 않기에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파도를 그냥 놓치기도 한다. '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타이밍에 다시 코치에게 재교육을 받고 나자, 세 명 모두 제법 능숙히 파도를 타기 시작한다.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서핑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모습이다. "엄마 진짜 잘 한다!", "아빠 대단한대~!" 하고 곁에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딸이 있어 부부는 더 힘이 난다.

### 더 바랄 것 없이, 너무나 감사한 가족의 존재

오늘 서핑체험이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낀 건 송창희 차장만이 아니다. 아내도 남편과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더군다나 남편은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함께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재미를 불인 딸이 더 타고 싶다고 하니, 송창희 차장과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며 자유서핑을 즐긴다. 햇볕에 살이 얹고, 물에 빠져 머리가 영망이 되어도 세 사람은 그 순간을 만끽한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다른 일은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딸도 사실 처음에는 시험기간이라고 망설이더니, 오길 너무 질했다고 즐거워하니까 저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삶의 여유와 아내, 아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서핑은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다음에는 아들과 함께 다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웃음도 많고, 장난도 잘 치는 편한 아빠, 남편이지만 회사에서는 오롯이 일에만 집중하는 송창희 차장. 일에 욕심도 많고, 시작하면 끝을 봐야하는 스타일인데, 그 열정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 건강에 무리를 줄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가장 강조하는 건 '건강'이다. "아빠가 집에서는 정말 장난 끼도 많고 친구 같으세요. 정말 허물없이 저희한테 다가와 주는 다정하신 분이세요. 다만 건강 생각해 술만 조

얘기하고 웃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오늘 같은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남편에게 고맙고, KAI에도 감사합니다. 맷벌이고, 아이들도 고등학교 입학, 고 3을 앞두고 있어서 같이 여행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웬만한 운동은 다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서핑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덕분에 딸에게 좋은 취미가 생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웃음도 많고, 장난도 잘 치는 편한 아빠, 남편이지만 회사에서는 오롯이 일에만 집중하는 송창희 차장. 일에 욕심도 많고, 시작하면 끝을 봐야하는 스타일인데, 그 열정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 건강에 무리를 줄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가장 강조하는 건 '건강'이다. "아빠가 집에서는 정말 장난 끼도 많고 친구 같으세요. 정말 허물없이 저희한테 다가와 주는 다정하신 분이세요. 다만 건강 생각해 술만 조



# 달달하고 매력적인 향초로 테라피하세요!

**항공기체계품질팀 변아람 과장 & 김종훈 사원  
기체생산2팀3직 양기열 & 조립생산팀6직 최지웅 & 장비개발직 조보희 기술원**



초가 연소되면서 매력적인 향으로 공간 속을 채워나가는 향초는 테라피 효과가 탁월한 아이템이다. 특히 업무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기분 전환에 꽤 효과적이다. 향초가 뿐만 아니라 상큼한 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회사 젊은 구성원들이 향초 만들기에 과감히 도전했다.

## 자신만의 감성으로 향초 만들기에 도전

항공기 제조라는 중량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회사 구성원들에게 예쁜 향초를 만들어보자는 이벤트는 자칫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제안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호기심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 번쯤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쳤고, 태어나 처음 만들어본 향초 만들기에 5명이나 참여할 수 있었다.

예쁜 향초공방에 들어서자 달달한 기운이 넘쳐났다. 대부분 20대로 이루어진 5명의 건강한 남정네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향초와 팝아트 작품,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이 낯설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딱딱한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기체를 만지거나 산적한 업무와 씨름해 왔던 혈기왕성한 KAI의 청년들이 아니던가.

이곳은 진주시 호탄동에서 캔들, 디퓨저, 석고방향제 등 아기자기한 생활소품 만들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뜰리에 홀쥬(대표 김현영)'로,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후 지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다.

오늘은 항공기체계품질팀 변아람 과장과 김종훈 사원, 그리고 기체생산2팀3직 양기열, 조립생산팀6직 최지웅, 장비개발직 조보희 기술원이 참여해 자신만의 색깔과 감수성으로 두 가지 향초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 향에 반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취하다

'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리핀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소 시 몸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반면, 오늘 만든 향초는 콩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인 소이왁스(soy wax)를 재료로 쓰기 때문에 연소시간이 길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재료 소개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아뜰리에 홀쥬 김보영 강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5명의 직원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젊은 직원들이라 의문점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문하고 서로 얘기도 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잔잔한 음악과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가 흐르는 예쁜 공방에서 향초를 만들다 보니 다섯 남자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손길마저 절로 섬세해진다.

"프래그런스 오일은 향 오일을 말하는데 왁스량의 최대 8%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왁스 25g만 있으면 되고요. 7oz(oz)의 유리 컨테이너에는 대략 150g의 왁스가 들어갑니다."

5명의 참가자는 강사가 설명하는 생소한 용어에 집중하면서 알콜로 소독된 용기에 개량한 150g의 왁스를 넣은 뒤 적정온도인 65°C가 되면 향을 넣기로 한다.



강사의 설명과 함께 섬세한 손길로 향초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회사 참가자들



강사가 선보인 향은 모두 24가지다. 바하마 브리즈, 가든 스위트피, 라임바질 만다린, 러브스펠 등 처음 들어보는 향의 명칭들과 서로 다른 향기에 정신이 훈미해지는 듯 했지만, 하나씩 향을 들어 코 밑에 가볍게 갖다 대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향기를 심사숙고해 골랐다. 각자 향을 2개씩 선택해 왁스가 굳어가기 전에 이를 조심스럽게 투여한다. 깜빡하고 향을 넣지 않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지만 강사의 적절한 대응 끝에 작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 애정을 듬뿍 담은 나만의 향초 탄생

여름을 맞아 시원한 느낌의 바다캔들과 새초롬한 플라워캔들을 자신의 느낌대로 장식할 순서이다. 심지를 넣고 왁스가 굳는 동안 참가자들은 소리나 조개, 거북 모양의 틀에 선호하는 색상의 왁스를 부어준다. 자칫 틀에서 왁스가 흘러넘

치기도 해 아차 싶기도 했지만 강사가 괜찮다며 다독이기도 한다. 향초를 만드는 과정이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작업이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하는 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공정과 작업량, 그리고 구성원들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해져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어지는 것 아닌가.

바다캔들에 들어갈 장식물과 손톱만한 꽃 재료들의 손질까지 끝나면 이제 초상단 표면을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꾸며본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표면이 굳고 왁스의 중심부가 굳지 않았을 경우 너무 세게 장식물을 눌러 붙이면 왁스가 표면으로 새어나오거나 크랙이 생길 수 있으니 힘 조절을 잘해야 한다. 장장 2시간 여 만에 각자 2개씩의 향초를 완성한 직원들은 뿌듯한 기분이 든다. 우윳빛 왁스에 자신들만의 색깔로 촘촘히 박힌 소품들이 어우러진 향초를 보

고 있자니 해냈다는 감동과 더불어 심지에 불을 붙이기조차 아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각자의 향초에 들어간 어려운 향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만든 생애 첫 향초가 탄생한 것이다.

#### 형제 같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핸드메이드

항공기체계품질팀 변아람 과장과 김종훈 사원은 나이와 입사시기도 3년 차이가 나는 선배와 사이지만,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 터놓고 소통하는 친한 사이라고 한다. 말수가 적은 변아람 과장이지만 김종훈 사원이 함께 향초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헌신히 허락할 정도로 후배에게 마음을 곧잘 내어주는 대인배다. 김종훈 사원도 당시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변아람 과장에게 업무 차 만났던 첫 인상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친형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나 친해진 두 사람은 오늘 향초를 만들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장식할 꽃을 준비할 때 소꿉놀이 하듯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내내 은은한 향을 맡으며 몰입하다 보니 기분만은 힐링이 되는 듯 좋았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초 보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것이 훨씬 특별한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이서 지금처럼 우리회사에서 생활해 나간다면 크게 바랄 것이 없다고 하니 언제나 행복한 일만 기득하길.

#### 단짝 친구 3명의 즐거운 향초 만들기

통통 튀는 젊음을 향초의 향기처럼 내뿜는 25살 동갑 친구인 양기열(기체생산2팀3직), 최지웅(조립생산팀6직), 조보희(장비개발직) 기술원은 2012년 우리회사에서 처음 만나 7년째 인연을 오고 있는 단짝들이다. 인천을 비롯해 대전과 창원에서 가족과 떨어져 이곳 사천에서 한 솥밥을 먹으며 우리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됐고, 팀은 비록 달라도 둘도 없는 입사동기이자 친구로 지내고 있다. 이 중 조보희 기술원은 작년에 결혼해 이미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해 이번에 만든 향초를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한다.

향초 만들기에는 양기열 기술원이 이벤트에 공모해보자는 말에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참가하기로 했다. 막상 세 명의 청년이 모이니 향초를 만드는 내내 얘기꽃과 웃음꽃을 곤잘 피워내는 20대의 향기가 공방을 가득 수놓았다.

"왁스를 뺏고 굳으면 끝나는 어렵지 않은 작업일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커다란 비행기를 만들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작업을 해 보는 것도 저희들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만들어진 향초는 집안에 두기만 하여도 장식성을 띤 소품이 되지만, 불빛을 머금기 시작하면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두통이나 우울증, 불면증까지 완화시켜주는 생활 속의 지혜로 거듭난다.

향초를 만드는 동안, 어쩌면 우리도 향초와 닮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신을 태워 각자가 지닌 향기를 세상에 내어놓으며 이심전심의 날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빛깔의 향기가 되고 있을까.



▲ 각자 만든 향초를 자랑하고 있는 참가자들(좌측부터 김종훈 사원, 변아람 과장, 조보희, 최지웅·양기열 기술원)

▼ 참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향초들



#### TIP 향초를 오래 사용하는 똑똑한 방법

① 심지의 길이는 5~10mm를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심지 길이가 너무 짧으면 불이 잘 붙지 않고, 너무 길면 불꽃이 커져 향초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용하는 중에 불꽃이 커졌다면 잠시 촛불을 끄고, 심지를 5~10mm로 짧아거나 손톱깎이로 자른 후에 사용할 것.

② 처음 사용할 때는 약 2시간정도 연소시켜 주어야 한다. 표면이 골고루 녹은 후에 향초를 꺼야 터널현상(비깥부분은 녹지 않고 중앙만 녹아들어가는 현상. 주로 직경이 큰 대용량 캔들에 많이 나타남)을 방지할 수 있다.

③ 향초를 끌 때, 입으로 불어서 끌 경우에는 액체상태가 된 캔들왁스가 될 수 있으며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을음으로 인해 용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워디퍼(녹은 왁스에 심지를 담궈 캔들을 끄는 도구)나 캔들스너퍼(종 모양의 도구로 손소를 차단해 불이 깨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 혹은 캔들 뚜껑을 이용해서 꺼야 한다.

④ 향초 높이가 1cm 미만으로 남은 경우, 열을 가하면 용기가 깨질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⑤ 장시간 사용할 시에는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몇 번의 여행길에 올랐고,  
드물지 않게 특별한 경험을 할 때면  
개인 블로그에 '젊음을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종종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른 사우 분들의 재미있는  
여행기를 보면서 막연히 내 글도  
보내고 싶다는 생각만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보 팀의 문을 두드려봤다.

글/사진:  
기체생산2팀2직 이준희 기술원

### 라이더가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도가 특별히 라이더들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라이더를 위한 인프라가 국내에서 훈치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미와 감동을 다잡은 테마 코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인프라는 라이더가 자전거와 함께 내달려야 할 자전거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및 시설 대여 전문점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라이더 코스로 유명한 '제주환상종주 자전거길'은 제주도 섬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열 군데의 스텁프 존에서 스텁프를 모아 여권처럼 완성시키는 짜릿한 재미가 있다.

때는 2018년 4월 27일,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한 후 사천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비록 한 시간의 연착과 더불어 평소 덜렁대는 성격이 특별히 빛을 발해(?) 중요한 물건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은 불안함이 동반하여 여행의 시작부터 어쩐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더랬다.

### 늦은 저녁부터 시작된 스텁프 투어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는 서쪽을 향해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해가 길어진 통에 아직 환한 주위에 안도하며 사전에 미리 알아본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했다. 그리고 대여점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용두암으로 향했다. 바쁘게 도착한 용두암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뷰포인트에서 바라본 기암의 모습이 흡사 용의 머리를 연상케 한다는 근사한 용두암을 시간을 들어 친찬히 음미하듯 감상하고 싶었지만, 출발 자체가 늦은 지라 서둘러 게스트하우스로 발길을 돌렸다.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인 애월까지 30km에 달하는 거리를 자전거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행 첫날의 설렘과 포부가 라이딩의 부스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만 1천 곳이 넘을 정도로 숙박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수기

시즌이나 인기가 너무 많은 곳만 아니라면 어디든 쉽게 당일 예약 및 이용도 가능하다.

### 중문관광단지부터 마라도까지, 주마간산 식의 속도전 라이딩

둘째 날, 전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부쩍 친해진 사람들들과의 아쉬운 헤어짐을 뒤로 한 채 제주도 최남단 중문관광단지까지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중문 인근에서 아침을 해결할 생각으로 전날 나름대로 맛집 검색을 해두었는데, 내가 북마크해둔 그 포스팅의 맛집은 이미 폐업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포스팅 날짜가 최근인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저 블로그 속 화려한 비주얼에만 눈길을 빼앗겨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따로 체크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혹여 그 집이 문을 닫았을 경우라도 대비하여 다른 집을 찾아뒀어야 했는데, 그런 완벽함이 아쉽게도 내게는 없었다. 더 이상 찾아보고 할 것도 없이, 주변 식당 중 제일 괜찮아 보이는 집으로 들어갔다. 결과는 대성공! 치명적인 얼큰함을 선물해준 맑

은 해물탕 한 그릇에 반주로 걸친 막걸리는 라이딩의 시름과 고난을 모두 잊게 해주는 맛이었다. 아래 서 어르신들이 낮술을 즐겨 드시는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 내가 찾은 맛집과

#### 넉넉한 제주 인심을 맛본 한끼

우연히 만난 맛집에서 든든하게 한끼 해결하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코스를 따라 중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지순례길, 송악산, 마라도, 보리밭으로 유명한 가파도, 자동차 박물관, 여미지식물원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았다. 제주 자체가 밤길 닿는 곳마다 천혜 자연의 풍광을 품고 있어, 불거리가 풍성하기도 하지만 특히 라이딩 코스에는 제주 대표 관광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 여행객들에게도 아주 좋을 듯하다.

주어진 일정 안에서 섬 한 바퀴를 종주하는 것이 목적인 나는 아쉽게도 개별 관광지를 일일이 들여다

볼 여유가 없어, 용수성지와 마라도에만 들리기로 했다. 용수성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가 중국 상해에서 사제성품을 받은 뒤 귀국하는 도중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표착하게 된 곳이다. 이 날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의 습격도 피할 겸 다음 배를 기다리며 허기를 채우기 위해 들른 마라도의 중식당에서는 사장님의 낙낙한 인심 덕분에 내가 주문한 짬뽕 외에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까지 서비스로 받았다. 막상 좋아 보이는 청년이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뇌에 잠겨 있는 모습이 꽤 안쓰러우셨나보다.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

### 최악의 미세먼지와 함께 한 라이딩

이른 아침, 조용히 숙소를 떠나 이 날의 목적지인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 저 멀리 어렴풋 보이는 성산일출봉을 조망하려는데 대기가 너무 흐리고 뿐 연 것 같아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했더니 맙소사. 농도가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망설였지만 내

젊음을 여행하다

## 불꽃 라이딩과 함께 한

## 제주 식도락 여행

### TRAVEL TIP

TIP 1 시계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면 근사한 해안도로를 감상할 수 있으며, 해안도로와 일주도로 접속 부분에서 혼란횟수가 감소한다.

TIP 2 시내구간(사라봉 용두암 하구2리-, 법환-정방폭포)은 차량 교통량이 많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귀덕-대정(모슬포항 부근) 구간은 해안도로에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일주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좋다.

TIP 3 제주환상 자전거길 인증수첩은 제주도관광협회 공항안내소, 제주형 안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용두암 관광안내소에서는 종주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

종주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어벌胤속옷, 양말 포함), 비상약, 슈즈(아쿠아), 전조등, 후미등, 물병, 고글, 버프, 헬멧, 에너지젤, 선크림, 휴지 등



옆을 늠름하게 지키고 선 자전거, 그리고 막바지를 향해가는 일정,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물론 마스크와 고글로 중무장한 후 말이다.

일정은 바빴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중간 중간 걸쳐 있는 맛집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때마침 근처에 전복성게돌솥밥이 유명한 집이 있다기에, 머나먼 여정을 위해 몸보신을 할 요량으로 들렸다. 뜨끈한 돌솥밥에 마가린과 간장을 함께 넣어 비벼먹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마가린의 고소함과 간장의 짭조름함이 전복과 성게의 쪽득한 식감과 만나니 최고의 맛을 내주었다. 돌솥 박닥에 눌러 붙은 누룽지를 박박 굽어 먹다가 얼마간 남겨두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들어 먹는 즉석 승능의 구수함으로 식사를 마무리했다.

#### 동양 최대 규모의 법당, 약천사

코스 도중에 만난 약천사는 제주도 내에서는 물론이고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절에 다다르기 전에는 그저 다른 절보다 높고 크다는 느낌뿐이었는데, 막상 당도한 절은 훨씬 더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다. 경내 곳곳에는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키 큰 야자수들이 늘어져 있어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

했다. 하와이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야자수가 정중하고 균일한 도량 속에서 그늘진 몸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의외로 어울리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절을 둘러보고 있자

니 한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버렸다. 최종 목적지로 다시금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김밥집과 백년초전복물회냉면을 맛보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그랬나. 김밥은 유명세만큼 잔뜩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맛이어서 아쉬웠다.

이날의 최종 목적지인 성산일출봉 인근 숙소까지 가는 여정에도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 섭지코지, 약천사 등 꽤 많은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정이 빠듯하여 약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올패스 해버렸지만 다음 번 여행에서는 꼭 한 번 제대로 들러보고 싶다.

#### 최악의 라이딩 조건,

#### 수백 번의 포기를 떠올린 파이널 데이

전날 밤 게스트들 간에 근사한 치맥 파티를 벌인 후, 성산에서 보는 근사한 일출을 위해 초저녁부터 칼같이 잠들었지만 무심한 하늘은 그런 나의 기대와 설렘에 차디찬 비바람을 내려주었다. 성산 일출

조망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일순의 천재지변(?)에 의해 무너졌고, 앞친 네 덮친 격으로 비바람을 만난 미세먼지 덕분에 라이딩 컨디션도 최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앞이 종점(용두암)인데 포기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다. 기존 장비 외에 우비라는 중무장 장비를 하나 더 추가하여 필사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앞을 가로 질렀다. 약천후 속에서의 라이딩은 고난의 오르막 이후에 으레 찾아오는 내리막길의 해방감마저 잇아가 버렸다. 강력한 맞바림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되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귀한 경험을 선사해주었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뛰어넘는 역경과 시련이었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온통 흐림 투성이었던 하늘의 도화지가 밀간 쪽빛과 쟁쟁한 햇볕으로 틸바꿈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제주의 마법인가! 언제 그랬 나는 듯 금세 무더워진 날씨에 좀 놀랐지만 날이 다시 밝아진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기분이 업된 상태 이기도 했다. 핫한 포토존을 구석구석 찾아내어, 다른 관광객들에게 스스럼없이 촬영도 부탁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맛집 리스트 순례는 필수! 리스트 거의 마지막 줄에 있었던 문어덮밥을 사먹

- ❶ 보기만 해도 속이다  
시원해지는 듯한 맑은해물탕
- ❷ 비주얼은 이래도 맛만큼은 최고!  
전복성게돌솥밥

- ❸ 높이 25m, 3층으로 지어진  
동양 최대의 법당, 약천사
- ❹ 게스트들과 함께 찍은 사진,  
게스트 파티에서 제일 열연한  
훈련소 냄새 물씬 풍기는  
뻔뻔이 주인공

- ❺ 꽃처럼 화려한 비주얼 뽐쁨!  
그만큼 맛도 출렁했던  
백년초전복물회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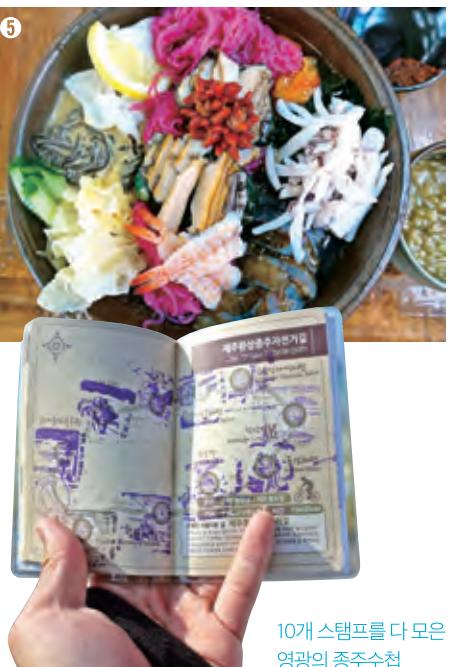
었다. 문어의 질긴 식감을 그다지 즐기진 않지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또 기어이 들른 것이었다. 덮밥을 클리어한 후 종점을 향해가는 길에 우도만큼이나 예쁜 제주 바다를 만났다. 그 이름은 바로 김녕해수욕장! 이 날 이후로 김녕 바다는 내 인생바다로 등극했다. 그만큼 맑고 아름다웠다.

#### ‘완주’라는 엔딩크레딧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해피엔딩

마침내 함덕서우봉해변에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고, 기쁨에 도취되어 열심히 인증샷을 찍다가 중국인 라이더를 알게 됐다. 이것도 인연이니 미션 종료 후 저녁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나누고 곧장 용두암으로 떠났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설령설령 내달렸다. 바로 그때 끝판 대장 최종 보스가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난이도는 그렇게 종점 직전에 지뢰처럼 매복해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수많은 라이더들이 이 마지막 지점의 지뢰를 밟고 장렬히 코스를 포기한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뵐비우스의 띠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다 똑같은 오르막은 사람을 지치게 했다.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도 절대, 영원히, 용두암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아득했다.

그러나 내 사전에 적어도 이런 식으로 목전의 포기 는 없었다. 모든 생각을 비워내고 그저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내달리니, 그렇게 거짓말처럼 용두암이 눈앞에 나타나주었다. 해가 끝 넉의 용두암은 첫날 출발지에서 만난 모습과는 묘하게 다른 부분이 느껴졌다. 코스 착수와 완주, 술한 고난과 고뇌, 노력,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된 나머지 감상 포인트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다. 아까 헤어졌던 중국인 누나와 약속대로 다시 만나 흑돼지 식당에서 거하게 회포를 풀고, 마지막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 야경투어를 끝으로 드래곤볼 버전의 인생사진을 하나 건졌다. 마지막 날에는 자전거를 대여했던 렌탈샵에서 종주 인증서를 받았다. 이 종이 한 장에 나흘에 걸친 260km의 피, 땀, 눈물이 담겨 있다 생각하니 좀 허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중한 경험, 나와의 싸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근사한 전리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지훈련으로 시작한 자전거 라이딩, 비록 몸무게는 더 불고 통장은 그만큼 비었지만 돈 주고도 못할 귀한 경험을 하나 또 쌓은 것 같아 참 뿌듯하다.

출처 : 개인블로그(<https://blog.naver.com/diamond-bisu/>), ‘젊음을 여행하다—제주도 편’



10개 스템프를 다 모은  
영광의 종주수첩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함

## 잊지 못할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가 살면서 받아본 여러 가지 선물들.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  
그 사람이 사용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오래 고민하여  
마침내 그 사람에게 건네기까지 거쳤을  
하나하나의 과정과 그 커다란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벅차오르지요.  
KAI인들에게는 어떤 추억이 깃든  
소중한 선물이 있는지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사회공헌팀 배진영 과장

### 그리워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 기억 속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은 본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두 명의 후배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때 제가 출산휴가 기간이라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뜻밖의 선물이 왔습니다. 한 명은 “아이 선물은 많이 받았을 테니 선배 선물”이라며 예쁜 손 편지와 함께 임부복을 선물로 보내왔고 또 한 명의 후배가 보낸 선물은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으로 그립다는 장문의 글과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금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또 한 명의 후배는 자신의 꿈을 찾아 외국계열 회사로 떠났지만... 예쁜 아이의 엄마는 곧 다시 회사로 돌아와 훌륭한 KAI인으로 더 성장할 테고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난 후배는 KAI에서 보고 배운 것을 발판삼아 더 큰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5년 정도 된 일이지만 회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없는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어 행복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 행복이 제일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심함과 사랑이 듬뿍 담긴 최고의 선물을 준 두 사람의 빈자리가 이 글을 쓰면서 새삼스레 그리워지네요.



계약관리팀 신정선 과장

### 수줍게 건넨 아이의 첫 러브레터

2년 전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한 달 정도 앞둔 올해 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막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첫째 아이와 유치원에서 함께 하교하는데 자랑스럽게 자기 손바닥만 한 종이 한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었는데, 그 종이에는 글씨 크기도 제각각이고 빠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예쁜 엄마 고맙습니다’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후로 제게 처음으로 건넨 편지였습니다. 아이한테 받아본 첫 편지는 힘든 육아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시에 날려주었고, 18개월 만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해주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저한테 준 그 편지는 아직도 제 방화장대 거울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아침마다 그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며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제 딥장을 전해주고 싶네요. “아들 엄마도 많이 사랑해, 고마워~”



KFX주식설계팀 이상봉 연구원

### 머무른 날은 짧았어도, 기억만은 영원히

2011년 여름, 뉴질랜드로 두 달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홈스테이로 뉴질랜드의 한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머니가 해 주시는 음식을 주로 먹었지만, 현지 사정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는 제가 스스로 점심 도시락이나 저녁식사를 따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류가 매우 저렴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연수 과정이 다 끝나고 모든 한국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모인 ‘Farewell Ceremony’에서 저의 홈스테이 가족은 제가 혼자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하면서 앞치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새’와 ‘은고사리’가 그려진 앞치마였어요. 값이 비싸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 저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해주기 위해 주는 것이었기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 그 집에 꼭 한번 다시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해서 못내 아쉽네요.



구성품체계검사직 김현태 전문기술원

### 손난로가 이어준 우리의 사랑

2000년 겨울, 지금의 아내와 요즘말로 ‘썸’이란 것을 시작할 무렵, 매일 외근을 하던 아내에게 손난로를 선물하였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손난로였는데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매일 추위에 떠는 아내에게는 아주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손난로 선물 덕분에 여사친에서 여친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에는 배우자가 되었지요. 지금도 장롱 속에 있는 손난로를 보면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기체조립품질팀 전병재부장

###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준 네 존재 자체가 값진 선물

제 인생 베스트 선물은 바로 제 둘째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가 왜 베스트 선물이 되었을까요. 여기엔 말 못할 가슴 저린 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혈액형이 RH-(negative)인데 저는 RH+입니다. 따라서 부인과 저는 혈액형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2명까지만 출산이 가능하고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하고 제 무지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둘째 딸(사실은 3번째) 출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이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또 둘째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와준 모습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제 : 그토록 소소하지만, 와 닿는 행복은 200% 확실한 직장인 소확행

## #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현재진행중, 학구파형



## # 씹고 뜯고 맛보노라, 미식가형



## # 넌 나의 최애 중 최애! 덕후형



2018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링겔ハンス섬의 오후>에 처음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느끼는 고양이의 감촉에서 문득 행복을 느꼈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이지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당장의 즐거움을 먼 미래로 유보시켜왔던 기성세대 마저 '소확행'을 즐기고 있다는 요즈음! 우리 KAI인들은 어떻게 소확행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 # 취미와 재능 사이, 문화형



## # 나를 위하여나 이웃을 위하여나, 활동형



## # 당신의 소확행을 도와줄 어플리케이션



'소모임', '프립', '플레이어스'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떡을 뭉칠 수 있게 하는 어플들도 많이 나와있다고 하니, KAI인들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 “똑똑한 시간 관리로 우리 행복해집시다”



**신사업기획팀 이진호 과장과 소형헬기항전무장팀 백수현 선임은 팀은 달라도 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입사 시기도 비슷한 막역한 관계이다. 요즘 서로 바빠 얼굴 보기 드문 와중에 이진호 과장은 백 선임의 위라밸 실현에 작은 팁을 주고자 시간관리를 테마로 한 책을 선물했다. 서로를 생각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대학시절부터 의지하고 소통해온 14년 징기

“저희는 대학시절 같은 학부에서 친했던 1년 차이 선후배 사이입니다. 입사 시기는 2년 차이가 나지만 결혼한 시기도 비슷하고 아이들 연령대도 같아서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면서 더욱 친숙한 관계가 됐죠.”

신사업기획팀 이진호 과장은 2008년 우리회사에 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대학 후배들에게 KAI를 소개했고 2년 뒤 소형헬기항전무장팀 백수현 선임이 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각자 팀이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백 선임은 힘들 때마다 선배인 이진호 과장에게 의지하고 소통하며 지난지 벌써 14년이 훌렀다. 이진호 과장이 말하는 백수현 선임은 학창시절부터 매사 긍정적이고 여유가 넘치는 후배라고 한다.

“백 선임은 아이들과 캠핑을 자주 다니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친구입니다. 다만 조금 느긋한 성격이라 곁에서 본 선배 입장에서 집요하거나 철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해 보여 시간관리에 대한 책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 꼼꼼한 시간관리로 일과 삶을 행복하게

『하루 3분 시간관리』는 지난 5월 4일 저자인 이임복 작가의 사내 열린 강좌에 참석한 이진호 과장이 워라밸 시대를 맞아 효율적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던 중 백 선임을 떠올리고 선물한 책이다. 회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바쁜 업무와 가정에서의 육아로 눈코 뜰 새 없는 백 선임에게 철저한 시간관리를 통해 일과 가정은 물론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할 것인지 시간관리가 중요합니다. 책에서도 언급했듯 우선 중요한 것이 실행력이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동기부여를 찾아야 됩니다.”

평소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후배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로 주변인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이진호 과장은 스스로도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 없이 노력하는 타입이라고.

“배울 부분이 많아 선배로서 동경했는데 선물까지 받아 감동입니다. 둘 다 고향이 경기도라서 태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며 서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애깊은 형제처럼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KAI 북클럽은 우리회사 구성원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동료에게 선물하는 카럼입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2018 JULY

## CEO 동정

###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발기인총회 참석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월 14일 본사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Korea Aviation Engineering & Maintenance Service, Ltd.)의 발기인총회에서 김조원 사장은 입시의장으로서 정부 관계자와 각 주주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를 진행, KAEMS의 정식 출범을 선포하였으며 대표이사로는 우리회사 조연기 MRO 법인설립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 주요 내용이 의결됐다.

7월 말 법인 설립예정인 KAEM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연말부터 여객기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채용된 인력은 7월부터 항공정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 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가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KAEMS는 LCC(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기체정비를 시작하여 국내 대형항공사, 해외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하고 이후 엔진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은 “오늘 출범하는 항공MRO 전문업체는 국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RO 전문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MAIN ISSUE

### KF-X 체계 기본설계검토(PDR) 회의 성공적 수행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 3일 동안 53명의 검토위원과 우리정부, 인도네시아,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KF-X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KF-X 전투기의 체계, 비행체, 계통, 항공전자 등 전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결과, 기본설계결과가 요구도를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설계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회사는 2018년 1월부터 PDR 진입통과 기준 수립을 시작으로, 진입기준을 충족하는 230여종의 산출물을 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PDR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정상적인 일정동안 사업의 수행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상세설계단계 진입을 위한 설계 성숙도를 확인하게 된 이번 회의 이후, 내년 9월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Critical Design Review)를 완료하게 되면 2021년 KF-X 시제 1호기 를이웃, 2022년 초도비행을 거쳐 2024년부터 초도기 양산 착수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NEWS PANORAMA

01

### KFX기능품설계팀,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감사패 수상

5월 3일 열린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창립 9주년 기념식에서 우리회사 KFX기능품설계팀 최광식 선임과 홍민재 연구원이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KICET은 2017년 4월 26일 우리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유탁과제를 통해 항공기 적용을 위한 첨단소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KFX 기능품설계팀은 KICET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회사의 경쟁력 확보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02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일행 본사 내방

5월 25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우마르 하디 대사 일행이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하디 대사는 항공기 및 항공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상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KF-X/IF-X 한-인니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과 함께 당사가 추진 중인 수리온, KT-1, T-50 등 완제기 인도네시아 수출사업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날 대사 일행은 T-50 수리온 항공기 생산현장과 개발센터 내 VR ROOM을 견학하고, 합동근무구역에서 KF-X/IF-X 체계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PTDI사 엔지니어들을 격려했다.



03

###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배치 수리온 취항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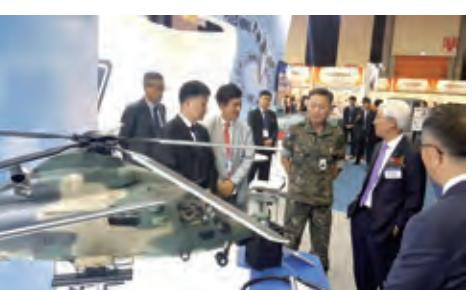
6월 15일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우리회사가 인도한 수리온 헬기(KUH-1FS)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사 운영본부장, 국내사업2실장도 초청되어 수리온 헬기 취항을 축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12월 우리회사와 205억 원 규모의 수리온 헬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9일 첫 납품을 완료, 영암산림항공관리에 배치했으며 야간산불 진화 등의 안전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수리온 헬기에는 한국형 디지털 전자지도(DMM)와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등 최신형 항전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04

### 2018 방산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 참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회사는 대전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2018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및 첨단국방산업전'에 참가, 수리온에서부터 KF-X까지 국산 항공전력의 주역들을 비롯해 수리온에 적용된 항공전자 국산 부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그 우수성을 홍보했다.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체계업체 및 부품·벤처기업 등 총 150여 개 사, 300개 부스 규모로 우리회사는 2016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 NEWS PANORAMA

**품질보증 활동 강화로 NO ESCAPE 달성 결의대회**

6월 19일 동반품질팀은 우리회사 협력사인 미래항공이 주관하는 '품질보증 활동 강화로 NO ESCAPE 달성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미래항공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품질 기본생활화 /FTQ 강화 실시, '품질에 대한 마인드' 강의, 품질결함 사례 교육에 이어 "품보활동(FTQ) 강화로 NO ESCAPE 달성하자!"는 구호로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미래항공 김태형 대표이사는 "항공산업의 시스템적인 기본과 절차를 지키고 작업자 자주보증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 작업의 원칙으로 작업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05

**2018 국제 해양·안전대전 참가해 국산헬기 마케팅 활동**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회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8 국제 해양 안전 대전'에 참가해 수리온 기반의 해양경찰헬기를 비롯, 경찰·산림·의무후송전용헬기와 소형민수헬기(LCH) 파생형 등 해양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부기관용 헬기를 선보였다. 총 14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장비 전문박람회인 이번 행사에서 우리회사가 개발한 수리온의 체계결빙능력 확보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맞춤형 헬기임을 적극 홍보했다.

06

**수리온 3차 양산사업 초호기 납품 완료**

6월 25일 우리회사는 수리온 3차 양산사업의 초호기(#91호기)를 납품을 완료하였다(#92호기와 동시 납품).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최종호기를 납품한 수리온 2차 양산사업에 이어 #91호기부터 #162호기까지 72대를 제작 및 납품하는 후속사업으로, 지난 양산 당시의 현안들을 초석으로 삼아 관련 구성원 및 유관부서가 긴밀히 협동하여 잔여 호기 납품 및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매진해나가고 있다.

07

**서울대학교와 무인이동체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6월 28일 우리회사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무인이동체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화시스템, 한화지상방산, 현대로템(주), LIG넥스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등 각 기업들도 참여하는 이번 협약은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사업 유치지원단' 소속 무인이동체 컨소시엄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미래 무인이동체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산학이 함께 공동 연구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미래 무인이동체 관련 첨단산업을 주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8

## KAI 사회공헌활동

**주거환경 위기 가정 긴급구호 활동으로 행복한집 4호 오픈**

6월 9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곤명면에 거주하는 정○○ 씨 가정을 방문, 움막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봉사활동을 나눔봉사단, 대한적십자사, 사천청소년육성재단, 곤명면사무소, 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여 행복한집 4호집을 오픈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의 폐가 리모델링 공사 후 나눔봉사단은 기존 움막철거 노력을 봉사 및 도배·장판, 주방가구, 보일러, 화장실, 조명 등을 교체하였으며, 다른 단체에서는 생활용품 등을 후원해 지원가정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01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 참전유공자 가정 후원**

6월 7일 나눔봉사단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유공자 가정(이○○ 어르신, 만 90세/정○○ 어르신, 만 88세)을 방문하여 사랑의 생활비를 후원하였다. 봉사단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이 돌아오면 사천군묘지 환경정화 및 서부경남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불우가정을 추천받아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훈청 김창숙 과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자 참전유공자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사랑에 늘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02

**지역 관내 국토환경정화 봉사활동 전개**

6월 23일 나눔봉사단은 사천 관내 국토환경정화 봉사활동을 구성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내 깨끗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항공테마공원 일원(1사 1하천 정화 구역)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토환경정화 봉사활동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봉사 활동으로 사천시와 함께하는 구성원 및 가족 참여형 지역사랑 봉사활동이며 앞으로도 깨끗한 사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03

## KAI 미담

**사내 응급환자를 신속한 조치로 회생시켜 훈훈한 화제**

6월 18일 오후 2시 25분 경 우리회사 항공기동에서 일하던 직원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우리 구성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와 신고로 한 생명을 살려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기체생산기술1팀 이도균 팀장과 KFX제작분석팀 유수은 부장, KFX구조해석팀 권길영 책임 등이며 이를 계기로 사내 응급조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응급처치 관련 교육문의: 안전환경팀 김명훈 물리치료사)



이도균 팀장



유수은 부장



권길영 책임



##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담은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퍼즐의 정답을 모바일웹진(<http://kaiwebzine.com>) 독자세상 코너의 댓글이나 이메일(wowdan@koreaero.com)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증정합니다. 모바일 웹진 어플 설치방법은 우측페이지 이벤트 내용을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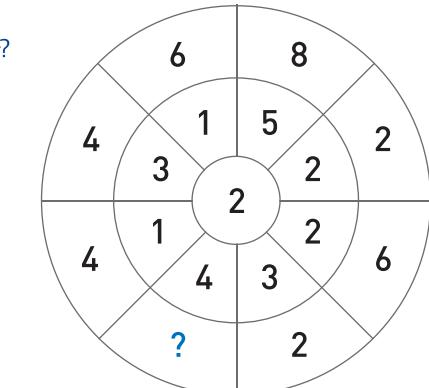


## 본부별 사내 기자단

- 개발본부 개발지원팀 **이현정** 과장 055)851-2799
- KFX사업부 KFX사업관리팀 **김미영** 과장 055)851-1578
- 운영본부 운영지원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 사업본부 사업기획팀 **이경태** 과장 055)851-9024
- 관리본부 경영기획팀 **박재환** 사원 055)851-9767

6월호 정답 : 60

**Q** 아래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 PUZZLE. KAI 독자 여러분 중 뇌섹남, 뇌섹녀를 찾습니다!





# 더욱 간편해진 모바일 앱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우리회사 사보 <Fly Together>가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Fly Together>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http://kaiwebzine.com)을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30

이제  
안드로이드·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모바일 사보 어플리케이션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아이폰**

- 앱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6월호 당첨자

1등_기체생산팀1직 김찬곤
2등_회전익훈련제계개발팀 조규승/기체생산팀2직 강기영/생산지원직 정기훈
3등_KFX전방설계팀 홍형택/회전익구매팀 나도영/국제공동개발팀 김규범/KT-100TF 이선경/KFX체계종합팀 한만주

**모바일 사보 앱 등록 기념 이벤트**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보 앱을 설치하고 각 칼럼 속 숨어있는 우리회사 KAI의 CI를 찾아 캡쳐 후 모바일 사보 앱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년 7월 5일~17일

**상품**

1등 T-50 모형(스탠드형) (1명)	2등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3명)	3등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5명)
--------------------------	--------------------------	--------------------------